

<제 55 호>

2022 년 2 월 14 일

(홈페이지: <https://kascn.org/>)

◆ 2 월 '흑인 역사의 달' 흑인 민권단체 기금 모금에 이보교가 동참 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보교')는 2 월 '흑인 역사의 달'을 맞이하여 한흑 커뮤니티간의 화합과 연대를 위한 흑인 민권단체 기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1. 흑인단체 기금 모금에 이보교가 동참하는 신앙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형제이자 이웃인 흑인 커뮤니티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역사와 현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언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심지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흑 커뮤니티는 함께 인종차별의 고통을 겪었기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화합하고 연대하며 차별과 갈등이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2. 한흑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희 이보교는 지난 해 6 주간의 '성찰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인 인종차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역사속의 뿌리깊은 인종주의와 백인우월주의를 극복하려면 아시아인 커뮤니티와 유색인종들의 긴 고난의 역사를 이해하고 보듬고 연대해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종화합을 위한 '성찰과 연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믿고 이웃과의 사랑을 으뜸 계명으로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반성하고 실천해야 할 사명이라는 배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한흑간 또는 아시아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의 연대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긴 연대의 역사와 사례들이 있습니다.

- 1800 년대 흑인 민권운동가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중국인 축출법' 반대

- 1940년대 뉴욕과 LA 등에서 인종평등의회(CORE)를 흑인과 아시아인이 공동창설하고 민권운동과 '일본인 강제수용 수용' 반대운동 연대
-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결과로 '민권법' '투표권법' '이민개혁법' 통과. 당시 아시아계 활동가들도 적극 동참
- 1982년 빈센트 친 인종혐오 살해사건 때 제시 잭슨 등 흑인 성직자들이 가장 먼저 가족들을 도움
-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때 아시아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가 함께 추모하고 연대
- 2021 애틀란타 아시아계 총격 희생 사건 때도 흑인과 아시아계가 함께 추모하고 연대

4. 최근 한흑간 화합과 연대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아인 혐오범죄의 급증 때문입니다. 최근 한인 상점들이 흑인들에게 피해 받는 사건들이 생기고 불경기로 인해 이런 사건이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통계상 반 아시아인 혐오범죄는 백인 가해자들이 더 많지만 흑인 가해자들의 사례가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중에는 아시아인 혐오범죄의 원인을 흑인들 탓으로 돌리고 비하는 일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LA 4.29 때처럼 순식간에 한흑 갈등으로 확산될 위험도 우려됩니다.

5. 모금운동으로 한흑 화합과 갈등의 치유에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작은 일부부터 관계를 맺어가면 한흑 화합에도 작지만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흑인들의 피, 땀, 눈물로 이뤄낸 민권법, 투표권법, 이민개정법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 내에도 이런 화합과 연대의 교육과 분위기를 만들어 갈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민권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교육재단(LDF)의 경험과 선례들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일 한흑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NAACP 와 LDF 는 어떤 단체 입니까?

- 유색인종지위향상전국연합(NAACP)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함께 활동하셨던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권익옹호 단체입니다. 각종 반이민법과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해 이민자들과 아시안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산하의 법률교육재단(LDF)은 최초의 흑인 연방 대법관이자 역사적인 브라운 대 교육청 소송을 승리를 이끈 서굿 마셜 변호사가 시작한 민권관련 법률소송기관 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이민법 관련 소송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7. 모금 후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정보를 적으시고 50 불 또는 그 이상 후원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함께 소속 교회나 이보교를 명시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2 월 28 일 까지 입니다. 참고로 한 독지가의 후원을 최고 10 만불 까지 매칭으로 후원금이 두배가 됩니다.

8. 특별히 교회들과 성도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을까요?

흑인 민권운동을 교회가 선도했던 만큼 한인 교회들이 한흑간 아름다운 연대를 선도하길 희망합니다. 한인들이 흑인들을 돕고 흑인들이 한인들을 돕는 아름다운 연대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후원사이트:

https://engage.naacpldf.org/HXsBNDbwEE2xxKK1PZeQlg2?source=DF22B55A&utm_source=fy22bhm&utm_medium=social&utm_campaign=bhm&utm_content=version5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7/14/2020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가 조지 플로이드 추모 및 인종차별 반대집회 참여

LEAD THE FIGHT FOR RACIAL JUSTICE ⓘ

\$100,000 MATCH
FOR BLACK HISTORY MONTH
DEADLINE: FEBRUARY 28

DONATE NOW

LDF
DEFEND EDUCATE EMPOWER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www.kascn.org/